

호열악회
제8회 정기연주회

秋雨梧桐葉落時에...

[추수오동엽락서 - 가을비에 오동잎이 떨어질 때에....]



대금 채수만 선생님



가야금 오은영 선생님

일 시 : 2013년 11월 2일 (토) 오후 6시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후 원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본 사업(공연/행사/도서)은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본 팸플릿으로 초대권을 대신합니다.



호열악회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43-52번지
TEL : 462-0173, H.P:010-4503-1175
카페주소 : cafe.daum.net/gukaksanjo





훈일악회 회장
황석주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

그윽한 사랑의 향기 가득 넘치는 계절에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훈일악회 제8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게 됨을 더 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훈일악회는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취미활동을 근간으로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수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선양하고 육성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루어진 자생단체입니다.

1990년 5월 31일 훈일악회가 창립된 이후 정기 공연과 아울러 KBS 지방시대, 문화회관 토요 상설무대 출연 등 70여회 공연에 참석하는 등 우리 음악의 전승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융성은 그 나라의 민족문화를 얼마나 소중히 가꾸고 있는가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족문화 속에는 수천년 이어 온 겨레의 삶과 얼이 스며 있고, 조상의 슬기와 그 나라 공동체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한류 문화가 온 세계를 풍미하고 있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드높이고 있으니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무대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은한 소리와 가락들이 미처 손닿지 못했던 우리들의 은밀한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연주회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평안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 넘쳐 마침내 그윽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秋雨梧桐葉落時에...

(추우오동엽락시 - 가을비에 오동잎이 떨어질 때에...)



진행 이 래 재

1. 대금, 소금 제주 송구여지곡(訟九如之曲) 집박 : 황석주
연주 : 전회원 장고 : 김예신 좌고 : 공정희
2. 대금 독주 요천순일지곡(堯天舜日之曲)
대금 : 최병민
3. 대금 제주 중요무형문화재 45호 강백천류 대금산조
연주 : 전회원 춤 : 장경화 장고 : 김예신
4. 가야금 독주 밤의 소리 작곡 황병기
연주 : 김정숙
5. 판소리 춘향가 중 속대머리, 사랑가
연주 : 전회원 소리 : 정선희 춤 : 장경화
북 : 공정희 모듬북 : 김예신
6. 사물놀이 삼도 농악
연주 : 예울림 예술단
팽가리 : 박범식 장고 : 이세은 북 : 김예신 징 : 김만덕
봄날은 간다, 부초같은 인생, 당신이 좋아, 내 나이가 어때서
색소폰 : 조영미(소프라노), 황석주(엘토), 이분우(엘토), 박순봉(테너)
연주 : 전회원 모듬북 : 김예신 장고 : 공정희
7. 가요 합주



집박 황석주



대금독주 최병민



가야금독주 김정숙



춤 장경화



팽가리 박범식



장고 이세은



북 김예신



징 김만덕



반주 공정희

연주곡 해설

1. 대금, 소금 제주 : 송구여지곡(訟九如之曲)

집박 : 황석주

연주 : 전희원 장고 : 김예신 작고 : 공정희

구여라 함은 서경에 천보라는 시에서 유래되어 오래사는 아홉가지 사물을 송축하여 장수를 기원하는 곡이다. 조선 세조때 보허자를 변주하여 만든곡으로 나라의 연례악(宴禮樂)과 정재(正才) 반주음악으로 연주되어 왔다. 되돌아 연주되는 형식을 띠고 있어 도드리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송구여곡은 높게 부른다하여 윷도드리라 한다.

2. 대금 독주 : 요천승일지곡(堯天舜日之曲)

대금 : 최병민

경풍년 두거의 자진한일에서 파생된 곡으로 청성 자진한일 또는 청성곡으로 불린다. 대금의 대표적인 독주곡으로 몰아쳐서 실날같이 뻗어내는 선율이 꿩길듯 이어지는 가락과 맑은 청소리가 특징이다. 장단은 한배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스러우며 맑고 아름다운 가락의 연속이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적인 전통음악이다.

3. 대금 제주 : 중요무형문화재 45호 강백천류 대금산조

연주 / 대금 : 전희원 춤 : 장경화 장고 : 김예신

강백천류 대금산조는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45호로 지정되었으며 1993년 8월에 김동표 선생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나위 더듬 가락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계면조가 많고 특징은 앞가락은 뒷가락을 치면서 풀고 맺으며 뒷가락은 앞가락을 당기면서 맺고 풀어 가는 것으로 두 개의 큰 가락들이 용해와 마찰을 빚으면서 내면과 이면의 힘을 풀고 헤치는 신비로움을 준다.

4. 가야금 독주 : 밤의 소리 작곡 황병기

연주 : 김정숙

1985년 8월에 작곡되어 같은해 11월 9일에 일본 동경에서 임치미가 초연한 곡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5월 17일 국립국악원 소극장에서 양승희가 초연하였다.

심전 안중식의 <성재 임간도>에서 악상을 얻어 작곡하였다.

성재 임간도는 숲속에 사는 어느 남자가 달빛 아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사립문쪽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찾아오는 이는 없고 바람만 휘몰아치면서 그의 머릿칼과 나뭇잎이 몹시 나부끼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 신비롭게

제2장 : 흥겹고 사랑스러운 중중모리

제3장 : 걱정적으로 구성된 고난도 기교를 구사

제4장 : 애절한 여백의미를 느끼게 하는 진양조풍의 가락으로 마무리한다.

5. 판소리 춘향가 중 : 쑥대머리, 사랑가

연주 : 전희원 소리 : 정선희 춤 : 장경화 북 : 공정희 모듬북 : 김예신

쑥대머리는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이 옥에 갇힌 대목을 노래 한 것으로 옥중비가로 불리기도 한다. 임방울 명창이 불러 공전의 히트를 한 대목이다. 사랑가는 춘향가를 창극으로 만든 대목중의 한 부분이다.

6. 사물놀이 : 삼도 농악

연주 : 예울림 예술단 뿡가리 : 박범식 장고 : 이세은 북 : 김예신 징 : 김만덕

사물놀이는 전통적 농악의 가락들을 무대화 시켜서 앉은반 형태로 재 구성한 타악 합주곡이다. 그 중 삼도 농악은 영남, 호남, 중부지역에서 유행되던 중요 가락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연주곡으로 만든 것이다.

7. 가요 합주 : 봄날은 간다, 부초같은 인생, 당신이 좋아, 내 나이가 어때서

연주 : 전희원 모듬북 : 김예신 장고 : 공정희 편곡 : 김태운

색소폰 : 조영미(소프라노), 황석주(알토), 이분우(알토), 박순봉(테너)

봄날은 간다 : 손로원 작사, 박시춘 작곡, 백설희 노래

부초같은 인생 : 서판석 작사, 공정식 작곡, 김용림 노래

당신이 좋아 : 정은이 작사, 남국인 작곡, 남진·장윤정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 박무부 작사, 김기수 작곡, 오승근 노래



출연진

훈일악회



황석주



한규석



박일환



김진호



오덕환



이분우



이향숙



백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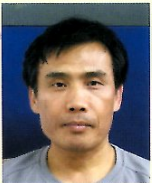
최병민



단공스님



박순봉



최근용



윤한식



성외관



김덕상



김래운



이수인



이현경



최용록



장래문

성남팀



박영준



김수환



김경욱



정수려



안신희



이래재



전양규



우병진



김무형



강행자



정종원



전홍선



남백우

창원팀



정항섭



김경락



안형환



이수호



이창식



박창호

